지상백고좌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학산 대원 대종사

노장이 전한 당부…"눈 뜬 사람이 돼라"

12면에 이어

참선·염불, 중생 고통 원인들 제거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
"눈 앞 보이는 육신에게 속고 있다
현실 긍정하며 그 안 진리를 보라"



오등시민선원을 찾아 수행 정진하는 재가 수행자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학산 대원 대종사. 수행 중 혼침이 온 재가 수행자에게 대종사는 어김없이 장군죽비를 내린다.



학림사 오등선원 앞에 있는 '이뭣고' 비석. 화두일념으로 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스님은 "공이라는 것은 의식적 상식적 사량분별로는 모르는 것이다. 실질적인 공부를 통해 깨달아야지 공을 알 수 있다. 실지로 공함을 체득하면 생사열반을 해탈하고 자유자재해 걸림이 없다"라고 설했다.

사바세계의 팔고(八苦), 삼도 팔풍의 모든 액난은 깊이 참구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없어진다고 한다. 공한 줄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본래 그지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반야지혜만이 자기의 문제를 벗겨낼 수 있다는 게 스님의 가르침이다.

이어 대원 스님은 조주 스님의 "뜰 앞의 잣나무"와 수초 스님의 "삼 세근(麻 三斤)"을 예로 들며 조사의 의지를 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어리석은 범부는 '뜰 앞의 잣나무와 삼 세 근'이라는 말을 따라가고, 거기에 머물러서 생각합니다. 개는 흙덩이를 따라가지만,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물어요. 뜰 앞의 잣나무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잣나무'라고 한 조주 스님의 그 의지를 바로 보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여기까지 말을 마친 대원 스님은 필자에게 주장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주장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답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묵묵부답인 필자를 두고 미소를 지어보인 스님은 법문을 이어갔다.

"이 주장자를 보고 바로 '부처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처님이니 거기에서 부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나무 작대기로만 본다면 어두운 견해를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여기서 부처가 있는 것도 보고 조사의 의지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승과의 문답이 중요한 이유

학림사 오등선원은 용맹정진 수행도량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생은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공부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한 눈푸른 납자들이 공부하는 수행처이다.

실제, 2017년 24명의 수좌들로 시작한 3년 용맹결사는 매일 공양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씩 좌선했다. 화두일념으로 수마와 망상을 이겨가며 정진해 2020년에 12명의 수좌들이 회향했다. 당시 세납 80세에 가까웠던 대원 스님도 3년간 장좌불와(長坐不臥)를 해 많은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지금도 오등시민선원은 토요일 오후가 되면 철야정진을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150명이 넘는 불자들이 모여든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참선 수행에 들어간다. 모두가 잠든 밤에 '나는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들고 밤을 새운다. 장군죽비를 들고 경책하는 대원 스님이 있어 불자들은 공부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 오등시민선원의 특징은 재가자들도 1년에 4번 일주일씩 용맹정진을 하는 것이다.

공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수마를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참선수행을 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조복받는 것인데, 스님만의 비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스님은 단박에 "비법 같은 것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설법을 이어갔다.

"〈금강경〉에 보면 항복기심(降伏其心)이 나옵니다. 모든 불행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중생심을 조복받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라는 화두 일념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일체 중생에 대한 마음을 바로 조복받아서 불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화두를 지극히 참구하는 일념이 되면 일체를 항복받아요. 일념이 되면 나중에는 일념이 무너져서 무념처가 되고, 무념처가 무심이 되면 중생심이 없어지고 화두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항복기심이 됩니다."

오등시민선원에서는 철야정진 후 차담시간에 조실스님과의 문답이 이루어진다. 공부인에게 제일 반가운 것은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고, 자신의 공부를 점검받는 것이다.

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육조 혜능 스님의 점검으로 깨달은 회양 스님의 이야기다.

남악 회양 스님이 육조 혜능 스님을 찾아갔다. 혜능 스님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물었는데 회양 스님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 후 회양 스님은 8년 동안 혜능 스님의 물음을 참구했다. 어느 날 홀연히 깨닫고 혜능 스님을 찾아가서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혜능 스님이 "그렇다면 닦아 증득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묻자 "깨달아 증득하는 것이 없지 않으나 물드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회양 스님은 좌우분별도 하지 않고 공부했기에 혜능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다.

회양 스님의 일화에서 선지식과의 문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대원 스님으로부터 공부를 점검받는 오등시민선원의 불자들은 수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없다.

부업으로 살지 말라

대원 스님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전도몽상(顚倒夢想)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세상살이에는 주업(主業)과 부업(副業)이 있는데, 부업을 주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힘들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일생동안 바쁘게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오히려 불행을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업을 버리고 부업으로만 살아가기에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먹고 살고 돈을 버는 일에 목숨을 던져서 일합니다. 돈, 부귀, 명예를 추구하는 삶은 부업에 불과합니다. 돈과 명예를 좇아 열심히 노력하지만, 세상살이에서 익힌 습성이 도리어 업이 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불심 자리를 찾아 참선 수행을 하거나 염불을 하고, 도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주업입니다.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는 그 일념은 중생들이 익혀온 고통의 원인을 항복받아 제거합니다. 본래의 맑고 밝은 마음,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지요. 불심은 만유의 근본인데, 내 마음 자리를 닦는 것이 본업입니다."

주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팽개치고 참선 수행만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스님은 "참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행동하는 일체가 화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긍정하면서 그 속에서 깊은 진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고통이 따르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부처 자리를 묻어놓고 반쪽 생활만 하는데, 이처럼 부업을 주업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전도몽상이라는 것이다. 지금 자신이 주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부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가르침이다. 부업이란 책의 부록과도 같다. 이것은 대중을 향한 스님의 경책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은 없어요. 몸과 마음도 변하는데 변하는 그것을 진상(眞相)으로 알고 믿고 있어요.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자기 재산이라고 착각하지요. 인연에 의해 합쳐져서 존재할 뿐, 숨이 끊어지면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지는 것이 우리 육신인데 그것을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육신에게 속고 있어요."

눈 감은 사람이 되지 말고 눈 뜬 사람이 돼야 한다는 대원 스님의 간곡한 당부는 중생에게는 꼭 감로법이다.

토요일마다 150명이 넘는 불자들에게 대원 스님은 "참선 수행으로 반야지혜를 증득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한다. 스님과 제자들의 구도 열정은 학림사의 새벽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의 간화선이 학림사에서 제2의 르네상스를 맞는 셈일까. 은산철벽 같은 계룡산도 학림사에 문을 내어주는 듯하다.

문윤정 / 작가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